

영락 오이코스와 함께하는

FAMILY DAY

<말씀 따라 행진하라>

민 9:23



가정예배 서약서

가정예배 드리기로 서약해요!

서약서

우리는 가정예배 공동체로서 가정예배를 실천하기로
다음과 같이 하나님 앞에 서약합니다.

첫째, 우리 가정은 교회의 예배에 반드시 참석하는
가정이 되겠습니다.

둘째, 우리 가정은 가정예배를 정기적으로 드리는
가정이 되겠습니다.

셋째, 우리 가정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실천하는
가정이 되겠습니다.

2023년 월 일

서약자: _____ 서명

목차

Contents



1·2·3월호 소개 - 2023 말씀 따라 행진하는 영락 가족 오이코스 두 번째 이야기	04
가정예배 이렇게 준비해요	06
가정예배 이렇게 드려요	07

가정예배 이렇게 드려요 (1-13주 실제)

1주	01.01 ~ 01.07	복을 주시는 하나님	10
2주	01.08 ~ 01.14	믿음의 유산	12
3주	01.15 ~ 01.21	긍휼한 마음	14
4주	01.22 ~ 01.28	여호와께서 싸우시리니	16
5주	01.29 ~ 02.04	여호와와 말하였음으로 말미암아	18
6주	02.05 ~ 02.11	제사장의 사명	24
7주	02.12 ~ 02.18	백성의 숫자를 세다	26
8주	02.19 ~ 02.25	왜 아론인가	28
9주	02.26 ~ 03.04	우리 땅에 거주하시는 하나님	30
10주	03.05 ~ 03.11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36
11주	03.12 ~ 03.18	부끄러운 노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38
12주	03.19 ~ 03.25	오직 나와 내 집은	40
13주	03.26 ~ 04.01	여호와께 물으니라	42

2023 말씀 따라 행진하는 영락 가족 오이코스 두 번째 이야기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민수기 9:23-

2023년 영락교회의 표어는 “말씀 따라 행진하라”입니다.

작년에 이어 믿음의 행진을 계속해서 이루어 나가기 위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나안 땅을 향해 행진하기 위해 중심 삼은 핵심 원칙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들의 유일무이한 영적 원칙이며, 최고의 영적 우선순위였습니다.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행진하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예배가 중심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하나님 임재의 상징이었으며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필수조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구름기둥이 임하는 자리가 있었는데, 그 자리가 바로 성막이었습니다. 성막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임하시는 장소,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였습니다. 이는 오늘날 예배의 장소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성전에 모일 때, 예배 드리기 위해 온 가족이 다함께 한 자리에 모일 때, 그곳에 하나님께서 임하십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들을 말씀해주십니다.

예배는 말씀 따라 행진하기 위한 우리의 영적 구심력입니다. 예배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깊이 만나며 경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순종을 결단해야 합니다.

자동차 운전을 해보신 분들은 모두 잘 아실 것입니다. 도로에서 운전을 하다가 신호등에 빨간불이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연히 멈춰 서야 합니다. 아무리 바쁘고, 약속 시간에 늦었다 하더라도 멈춰서 초록불이 들어오기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에 따라 행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겠다는 의지와 결단의 자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는 초록불 명령이 떨어지면 어렵고 힘들어도, 가기 싫어도 말씀에 순종해서 앞을 향해 움직이고 나아가야 합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멈춰라’는 빨간불 명령이 떨어지면 아무리 가고 싶고 움직이고 싶어도,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실 때까지 계속해서 인내하며 그 자리를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히 이러한 순종 훈련을 받았습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이끄는 이동경로에 따라가고 서기를 계속적으로 반복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를 통해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순종의 삶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셨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영적 의무와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각자마다 할당하여 주신 영적 직무와 책임들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행진하기 위해 짐을 짊어져야 했을 것이며, 누군가는 리더십을 발휘해서 통솔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리 할 때 이스라엘 공동체는 일사불란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해주신 목적지를 향해 힘차게 행진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올해 나에게 맡겨주신 영적 의무와 직무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 책임지는 자세로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과 결단이 필요합니까? 한 사람도 이와 같은 부르심에 제외되어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올 한 해 말씀 따라 행진하기 위해 나와 우리 가정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명에 적극적으로 충성하고 봉사하기를 꿈꾸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성취되며, 하나님께서 예비해놓으신 큰 은혜를 경험하는 2023년이 될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1-3월호 패밀리데이 가정예배책자를 통해 우리의 자녀들과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되는 시간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멈추지 않는 믿음의 행진을 이루어 나가며 최종 승리하는 영락의 다음세대와 온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예배 이렇게 준비해요



가정예배를 통하여

1. 우리 가정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모시며
2. 부모의 영적 권위가 회복되며
3. 가정이 신앙의 공동체로 세워지고
4. 자녀를 다음세대의 예배자로 세워나간다.

우리 가족 약속

온 가족이 다 모일 수 있는 요일, 시간, 가족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장소를 정합니다.
(예: 거실, 부엌식탁 등)

1. 예배인도자는 기도자를 정하고, 예배에 필요한 주제송 음원과 예배자료집을 미리 준비합니다.
(홈페이지를 통해 관련자료를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www.youngnak.net)
2. 가정예배를 드릴 때, 자녀들이 나누는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3.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4. 자녀가 없는 부부 가족이나 일인 가족도 시간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합니다.
5. 가정예배 에티켓
 - 1) 정해진 시간에 예배드립니다.
 - 2) 휴대폰과 TV는 꺼둡니다.
 - 3) 자리에 바르게 앉아서 예배드립니다.

가정예배 이렇게 드려요



1 찬양

주어진 찬양을 가족과 함께 부르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이달의 찬양 <내 마음의 한자리> 11p

2 말씀읽기 (개역개정)

한 주간의 성경 본문 말씀을 가족과 함께 읽습니다.

가족이 다함께 또는 한 절씩 읽도록 합니다.



말씀읽기 - 민수기 12:3

3 생각하기

말씀을 중심으로 주어진 질문에 답해봅니다.

가족의 생각과 다짐을 함께 나눕니다.



생각하기

4 말씀듣기

말씀의 배경을 함께 알아봅니다.

가족 중 한 사람이 내용을 읽어주며, 다른 가족은 경청합니다.



말씀듣기

5 기도

오늘 말씀을 통해 발견한 은혜를 나누며 기도로 마칩니다.

가족의 기도제목을 적고 주어진 기도제목과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

1

JANUARY

일-sun 월-mon 화-tue 수-wed 목-thu 금-fri 토-sat

1

2

3

4

5

6

7

신년주일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설날

29

30

31

이달의 찬양

주님 말씀하시면



QR코드: QR코드를 찍으시면 해당 찬양의 유튜브 페이지로 접속 가능합니다. 찬양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3 D G/D A/D D D

주 님 말 씀 하 — 시 면 — 내 가 나 아 가 — 리 다 — 주 님 뜻 이 아 — 니 면

6 G A D D/F# G

— 내 가 멈 춰 서 — 리 다 — 나 의 가 고 서 — 는 것 — 주 님

11 A A/C# D D/F# G G/A D

뜻 에 있 — 으 니 — 오 주 — 님 — 나 를 이 꾼 — 소 — 서 —

16 1. D/F# 2. A/G D/F# G A sus4 A

주 님 뜻 하 신 그 — 곳 에 — 나 있 기 원 합 — 니 — 다

21 Bm7 D/F# A/G D/F# G A sus4 A

— 이 꾼 시 는 — 대 로 — 순 종 하 며 살 — 리 — 니

25 Bm7 D/F# A/G D/F# G A sus4 A

— 연 약 한 내 — 영 훈 — 통 하 여 임 하 — 소 — 서

29 Bm7 D/F# E m7 D/F# GM7 A sus4

— 주 님 나 라 와 — 그 뜻 을 위 — 하 여 —

33 1. A A/G D/F# 2. A A/G D/F# G G/A D

뜻 하 — 오 — 주 — 님 — 나 를 이 꾼 — 소 — 서 —

1/1-7

1주 가정예배

복을 주시는 하나님

창세기 1:28



이 달의 찬양 <주님 말씀하시면>

11P



말씀 읽기 - 창세기 1:28

28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생각하기

- Q1.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다는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 의, 거룩, 성품 등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나에게 눈에 띄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형상은 무엇인가요?
- Q2. 새롭게 시작한 2023년,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기억하면서 우리 가정과 나의 신앙적 목표를 나누어 봅시다.



말씀듣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창1:1”.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 모든 것의 주인이심을 선언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의 시작과 끝이시며, 목적이 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첫째 날에 빛을, 둘째 날에 하늘을, 셋째 날에 땅과 바다와 땅 위의 식물과 나무를 만드셨습니다. 또 넷째 날에는 해와 달과 별을, 다섯째 날에는 물고기와 새를 만드셨고, 여섯째 날에는 동물과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일곱째 날에는 안식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창조된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은 ‘좋다(토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좋다(토브)’라는 말씀은 창조된 모든 만물이 완벽하게 아름다웠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의와 거룩과 성품과 사랑이 그 안에 스며들어 있음을 보시고 깊은 동질감과 친밀감을 느끼셨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사람들에게 이런 세상을 맡기시면서 더불어 살며 그 ‘좋음(토브)’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하셨습니다창1:28.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우리는 하나님의 의와 거룩과 사랑을 품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정의를 행하고, 생명을 소중히 여기며, 모든 피조물과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임과 동시에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영적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새롭게 시작한 2023년, 우리는 말씀과 기도, 예배와 삶을 통해 더욱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닮아갈 뿐만 아니라 끝까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더욱 말씀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를 귀히 여겨주시고, 기뻐하심으로 더 큰 은혜와 더 큰 감사의 제목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기도

하나님 2023년 새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만드신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아름다우심과 사랑, 의와 거룩하심이 가득한 것을 발견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심으신 하나님의 성품과 사랑을 온 땅 가득 채워갈 수 있도록 믿음과 힘을 더해 주세요. 올 한 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세상을 사랑하고 돌보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해주시고, 더욱 하나님을 많이 닮아가며 온 세상에 예수님의 향기를 전하는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주세요.



가족 기도제목을 적어보세요

1
1

2

3

1/8-14

2주 가정예배

믿음의 유산

창세기 25:11



이 달의 찬양 <주님 말씀하시면>

11P



말씀읽기 - 창세기 25:11

- 11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의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브엘라해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생각하기

Q1.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고 있나요?

Q2.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가족과 함께 나누어 보세요.



말씀듣기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다가 죽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죽었지만,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향한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1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간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의 자녀와 후손에게 대대로 이어진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이 평생에 걸쳐 하나님과 동행하고자 노력했던 모습을 자녀가 옆에서 보고 배울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과도 함께하시며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가만히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을 보면, 이삭은 브엘라해로이 근처에 머물러 살았다고 합니다. 브헬라해로이의 뜻은 ‘나를 살피시는 살아계신 이의 우물’입니다. 이삭이 브엘라해로이 근처에 거주했다는 말씀을 통해, 이삭이 자기를 살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들고자 노력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이삭은 아버지의 믿음이 아버지의 믿음으로만 머물지 않고 자신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섰던 것이지요. 이처럼 믿음의 유산은 아브라함과 이삭이 은혜 가운데 함께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우리 가정은 어떠한가요? 우리 가정도 부모님과 자녀들 모두가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나요? 우리 가정도 하나님께서 베풀신 은혜를 함께 나누며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더욱 더 견고히 서는 믿음의 가정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 가정이 믿음의 유산을 대대손손 흘려보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

하나님, 우리 가정에 복 주시고 동행해주셔서 감사해요. 우리 가정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가정 되게 해주세요. 무엇보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자녀와 후손에게 이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주세요.



가족 기도제목을 적어보세요

1 / 15-21
3주 가정예배

긍휼한 마음

창세기 42:21



이 달의 찬양 <주님 말씀하시면>

11P



말씀 읽기 - 창세기 42:21

21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생각하기

Q1. 긍휼한 마음이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나요?

Q2. 누군가를 향해 긍휼한 마음을 가져본 적이 있나요? 그 때를 떠올려보고 함께 나누어 봅시다.



말씀듣기

흉년이 들이닥쳤습니다. 흉년이 오래되자 요셉의 형들은 애굽에 곡식이 많다는 소식을 듣고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 애굽에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요셉의 형들이 노예로 팔았던 요셉이 총리가 되어 모든 곡식을 관리하고 있었던 겁니다. 형들은 자신들이 용서받지 못할 행동을 저지른 요셉에게 곡식을 달라고 해야 했던 것이지요. 형들은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고 요셉에게 나아가 절하며 곡식을 사러 왔다고 합니다. 요셉은 자신을 팔아버린 형들을 어떻게 대했을까요?

요셉은 모른 채 하면서 형들을 애굽에 해를 가하기 위해 온 정탐꾼으로 몰아갑니다. 형들은 자신들이 정탐꾼이 아니라 한 형제들이라며, 두고 온 동생도 있다고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요셉은 그 말이 사실이라면 두고 온 동생을 데려오라고 말하며 삼일 동안 감옥에 가둡니다. 요셉이 이렇게 행동한 이유는, 형들이 쾌嚓해서 지난 잘못을 뉘우치게 하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이유는 동생 베냐민을 이곳으로 데려오고 모든 가족들을 애굽으로 데려오기 위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흉년이 더 오래 지속될 것이라 곡식이 있는 애굽에서 가족들을 돌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자신을 팔았던 형들에게 복수하기보다, 형들과 가족을 살리기 위해 긍휼의 마음을 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곳에 두신 이유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어릴 적 형들이 자신에게 절하는 꿈을 꿐습니다. 그런데 형들이 곡식을 사러 왔을 때 그 꿈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 이뤄진 것을 보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그런 요셉은 형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팔았다고 자책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하시려고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두신 이유,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통해서 볼 때 다른 사람들 을 긍휼의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비록 사람들이 나를 해하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두신 이유를 생각하며 긍휼의 마음을 품고, 모두를 살릴 수 있는 주님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두신 이유를 생각하게 해주세요. 그리하여 긍휼의 마음이 필요한 사람과 상황을 외면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주님의 생명의 통로가 되게 해주세요.



가족 기도제목을 적어보세요

1/22-28

4주 가정예배

여호와께서 싸우시리니

출애굽기 14:13



이 달의 찬양 <주님 말씀하시면>

11P



말씀읽기 - 출애굽기 14:13

13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
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생각하기

Q1. 내 힘으로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난 적은 언제 인가요?

Q2. 그때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기대해 본 경험이 있나요?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을지 함께 나누어 보세요.



말씀 듣기

“오도 가도 못하다”라는 말을 들어보았나요? 이 관용구는 사람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출애굽 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군대를 피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 끝이 보이지 않는 망망대해인 흥해를 만났습니다. 뒤로 도망가려고 하자 애굽 군대가 잡으러 오고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그들은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을 마주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 떨며 원망합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우리는 살면서 이러한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을 만나기도 합니다. 때로는 막막한 상황 가운데 해결책을 찾지 못해 어려움도 겪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일한 해결책인 하나님을 선포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늘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럴 때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며 해결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많은 문제를 마주할 때,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려움에 빠진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구하시고자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도

하나님,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두려워하기보다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주세요.

가족 기도제목을 적어보세요

1
/ 4

2

3

1/29-2/4
5주 가정예배

여호와와 말하였음으로 말미암아

출애굽기 34:29



이 달의 찬양 <주님 말씀하시면>

11P



말씀읽기 - 출애굽기 34:29

29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 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음으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다라



생각하기

Q1. 나는 누구와 가장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고 있나요?

Q2.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요? 함께 나눠 봅시다.



말씀듣기

‘근묵자흑’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먹을 가까이 하면 검어진다는 뜻으로, 나쁜 사람을 가까이 하면 나쁜 벼룩에 물든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사람은 주변 사람이나 그가 처한 환경에 영향을 받기 마련입니다. 정직한 사람과 가까이 지내면 정직을 배우고, 도둑과 가까이 지내면 도둑질을 배우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를 가까이 해야 할까요?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시내 산에 올라갑니다. 시내 산은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 약속을 받았던 떨기나무가 있는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이제까지 말씀대로 인도해주신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인도해주실지 알기 위해 시내 산에 올라갔던 것이지요. 하나님은 그런 모세와 40일 동안 함께 하시며 또 다른 언약을 세우시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모세의 얼굴에는 하나님의 광채가 묻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며 말씀을 들은 모세는 시내 산 아래에서 불안함에 떨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인도합니다.

오늘 날 세상은 앞이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 방황하며 또 다른 어둠에 물들고 있습니다. 이 어둠에 물들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빛이신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에 휘둘리지 않고 빛 가운데 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께 나아가 빛 가운데 거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방황하는 세상 가운데 주님의 빛을 비출 수 있는 믿음의 가정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

하나님, 세상 가운데 주님의 빛을 비추는 우리 가정 되게 해주세요. 그럴 수 있도록 세상에 물들기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믿음의 가정 되게 해주세요.



가족 기도제목을 적어보세요

메모 MEMO

2

FEBRUARY

일-sun 월-mon 화-tue 수-wed 목-thu 금-fri 토-sat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사순절 1주

이달의 찬양

허락하신 새 땅에



QR코드: QR코드를 찍으시면 해당 찬양의
유튜브 페이지로 접속 가능합니다. 찬양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B♭ B♭ E♭ B♭ B♭ C 7 F

1. 허 락 하 신 새 땅 에 들 어 가 려 면
2. 시 험 환 난 당 해 도 낙 심 말 고 서
3. 앞 서 가 신 예 수 님 바 라 보 면 서
4. 일 할 곳 이 아 직 도 많 이 있 으 니

B♭ B♭ E♭ B♭ B♭ F 7 B♭

맘 에 준 비 다 하 여 힘 써 일 하 세
맘 에 각 정 버 리 고 힘 써 일 하 세
모 두 맘 을 합 하 여 힘 써 일 하 세
답 대 하 게 나 가 서 힘 써 일 하 세

B♭ E♭ C C 7 F F 7

여 호 수 아 본 받 아 앞 으로 가 세

B♭ F B♭ E♭ B♭ F 7 B♭

우 리 거 할 처 소 는 주 님 품 일 세

2/5-11
1주 가정예배

제사장의 사명

례위기 13:2



이 달의 찬양 <허락하신 새 땅에>

23P



말씀 읽기 - 레위기 13:2

- 02 만일 사람이 그의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뾰루지가 나거나 색점이 생겨서 그의 피부에 나병 같은 것이 생기거든 그를 곧 제사장 아론에게나 그의 아들 중 한 제사장에게로 데리고 갈 것이요



생각하기

- Q1. 코로나에 확진되어 격리된 적 있나요? 왜 코로나에 걸리면 격리해야 할까요? 전염 병과 죄는 어떠한 공통점이 있을까요?
- Q2. 죄는 전염됩니다. 죄는 주변 사람과 나 자신을 아프게 합니다. 그렇기에 죄와 분리 가 필요합니다. 죄와 분리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말씀듣기

출애굽한 후 이스라엘 민족은 40년 동안 광야생활 했습니다. 지금처럼 좋은 집, 좋은 의료 환경이 갖추어진 것이 아니라 열악한 환경 속에 텐트를 들고 계속 이동하며 공동생활을 했습니다. 공동생활을 하다 보니 한 명이 병에 걸리면 주변 많은 사람들에게 병이 옮기기 쉬운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에 걸리면 전염성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전염되는 병이라면 환자를 격리해야 했습니다. 지금처럼 방역 시설이나 마스크 같은 것도 없었기에 격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피부에 의심스러운 것이 생기면 제사장에게 가서 질병의 유무를 가렸습니다. 마치 코로나 시기에 검사를 받으러 가는 것과 같습니다. 전염이 되는 나병으로 확진되면 환자를 진 밖에 격리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병이 옮기지 않게 하려고 말이지요. 누군가를 진 밖으로 내보내어 격리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모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과정이었습니다.

육신의 질병 뿐 아니라 우리의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죄와 우리를 분리시키는 것이지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기 위해 노력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 가정이 예수님께 나아가 용서받고, 죄로부터 분리된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

하나님, 전염병에 걸리면 제사장에게 나아가 병을 확인하고 진 밖에 격리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죄를 예수님 앞에 나아가 고백하며 용서받게 해주세요. 그리고 죄로부터 분리된 거룩한 삶을 살도록 도와주세요.



가족 기도제목을 적어보세요

2/12-18
2주 가정예배

백성의 숫자를 세다

민수기 1:2



이 달의 찬양 <허락하신 새 땅에>

23P



말씀읽기 - 민수기 1:2

- 02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생각하기

- Q1. 하나님은 나를 통해 무슨 일을 하기를 원하실까요?
- Q2. 그 일을 하기 위해 나와 우리 가정은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함께 나눠보세요.



말씀듣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 이스라엘을 통해 약속하신 땅을 정복하기 위해 모세를 불러 이스라엘의 남자가 모두 몇 명인지 세라고 말씀하십니다. 몇 명인지 알아보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 중 전쟁에 나가 싸울 수 있는 자를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주시면 좋을 텐데,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를 세게 하시며 전쟁을 준비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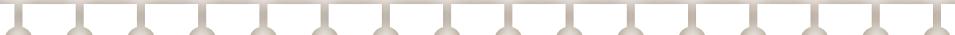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고자 애굽에 열 가지 재앙을 일으키시고, 흉해를 가르시며, 만나와 메추라기로 이스라엘 백성을 먹이셨습니다. 그와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던 곳을 떠나 갈라진 바닷길을 걸어야 했으며 내일의 양식을 가지지 못한 채 행진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며 자신들이 해야 할 바를 했었던 것이지요. 이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기 전에 숫자를 세는 일로 또 다른 역사를 준비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약속의 땅 가나안에 가득했던 우상의 문화를 걷어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털바꿈하고자 하신 것 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준비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가나안을 정복해가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노예로 살던 애굽에서 벗어나 자유민으로 살 수 있도록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우리가 해야 할 바를 준비해야 합니다. 익숙했던 자리를 떠나고 바닷길을 건너야 하며 내일이 보장되지 않는 길일지라도 한 걸음씩 행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약속을 붙들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한 걸음씩 행진하는 우리 가정을 하나님께서는 인도해 주실 것이며 결국엔 약속의 땅에 도착할 수 있도록 하실 것입니다.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 가정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며 살아가는 우리 가정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이루기 위해 익숙했던 자리를 떠나고 불확실한 길로 나아가야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말씀 따라 행진하는 우리 가정 되게 해주세요.



가족 기도제목을 적어보세요

2/19-25
3주 가정예배

왜 아론인가

민수기 17:8



이 달의 찬양 <허락하신 새 땅에>

23P



말씀읽기 - 민수기 17:8

- 08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생각하기

- Q1.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적이 있나요? 하나님은 그런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 Q2. 하나님은 나를 들어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어떤 일에 사용하실 것 같나요? 함께 나눠봅시다.



말씀듣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모세의 형 아론에게 기름 부으시고 제사장으로 삼으십니다. 아론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께 속죄의 제사를 드리고 경배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아론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용서하시며 이스라엘 백성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이처럼 아론은 하나님께 택함 받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용서 받는 일에 귀하게 쓰임 받습니다. 그렇다면 아론이 다른 사람보다 의로워서 하나님께 선택 받은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론은 하나님을 금송아지 우상으로 추락시키는 일을 벌였던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무엇보다 우상을 싫어하시는데,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드는 끔찍한 일을 행한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아론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아론을 용서하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심지어 제사장으로 세워주시며 이스라엘 민족을 대표하여 제사 드리게 하십니다. 죄인이었던 아론이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나 생명의 통로가 된 것이지요.

우리는 여러 가지 죄를 짓습니다. 누군가를 미워하기도 하고 속이기도 하며 심지어 하나님을 저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다보니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나를 싫어하시겠지? 나도 이런 내가 싫은데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은 나를 더더욱 멀리 하실거야.” 우리는 죄를 지을 때마다 스스로에게 실망하고 좌절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을 멀리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우리들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죄인이었던 우리를 용서하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 사람들에게 생명이 흘러가도록 귀하게 사용하십니다. 우리 가정에 죄가 많다고 생각해서, 혹은 하나님을 멀리해서 하나님의 우리 가정을 미워하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진 않나요? 모든 염려와 걱정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가정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여전히 변함없이 우리 가정을 향하고 계셔서, 우리 가정을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이웃에게 주님의 생명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귀한 믿음의 가정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

하나님, 부족한 저희를 사랑으로 택하시고 성령을 부어 주셔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거룩한 제사장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가정되게 하시어, 이웃에게 주님의 생명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게 해주세요.

가족 기도제목을 적어보세요

1

2

3

3

2/26-3/4
4주 가정예배

우리 땅에 거주하시는 하나님!

민수기 35:34



이 달의 찬양 <허락하신 새 땅에>

23P



말씀 읽기 - 민수기 35:34

- 34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음이니라



생각하기

- Q1. 내가 하는 행동에 대해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다면, 내가 제일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착한 행동인가요 아니면 나쁜 행동인가요?
- Q2.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이 정말로 믿어지시나요? 그렇다면 지금 내 생각과 행동이 어떻게 달라질까요?



말씀듣기

우리는 내 옆에 누군가가 없으면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려 합니다. 마치 어린 아이들이 부모님이 없으면 먹고 싶은 것도 마음껏 꺼내 먹고, 평소에 만지지 말라 했던 물건도 이것저것 다 꺼내놓아 집안을 어지럽히는 것처럼 말이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러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심을 기억하지 않는다면, 백성들은 가나안 땅의 잘못된 문화를 그대로 받아들인 채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살아갈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다가 스스로 무너지지 않도록, 지켜야 할 규칙과 법을 만들어 주십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12지파가 각각 땅을 어디부터 어디까지 나누어 받을지를 정해주셨습니다. 실수로 사람을 죽인 이가 있다면, 그가 죽은 사람의 가족들로부터 복수의 희생양이 되지 않도록 도피성이라는 성읍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모든 규칙과 법에서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디 멀리 떠나 계시는 게 아니라, 항상 백성들을 신경 쓰시고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며 함께하신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말씀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도 나와 우리 가정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내 생각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과 주변의 이웃을 신경 쓰지 않고, 내가 편하고 좋을 대로만 살아가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이제는 나와 우리 가정에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가족 기도제목을 적어보세요

1

2

4

3

메모 MEMO

3 MARCH

일-sun 월-mon 화-tue 수-wed 목-thu 금-fri 토-sat

1

2

3

4

삼일절

5

6

7

8

9

10

11

사순절 2주

12

13

14

15

16

17

18

사순절 3주

19

20

21

22

23

24

25

사순절 4주

26

27

28

29

30

31

사순절 5주

이달의 찬양

주 달려 죽은 십자가



QR코드: QR코드를 찍으시면 해당 찬양의
유튜브 페이지로 접속 가능합니다. 찬양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F C F Gm D Gm F F

1. 주 달려 죽은 십자 가
2. 죽으신 구주 밖에 는
3. 못박힌 손발 보오니
4. 온세상 만물 가져도

5 F F7 B♭ F F F C

우리가 생각 할 때에
자랑을 말게 하소서
큰자비나 타내 섰네
주은혜 못다 갚겠네

9 F C F Gm D Gm F F

세상에 속한 욕심을
보혈의 공로 힘입어
가시로 만든 면류관
놀라운 사랑 받은 나

13 F C Dm Gm C7 F B♭ F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아멘
교만한 맘을 버리네
우리를 위해 쓰셨네
몸으로 제물 삼겠네

3/5-11

1주 가정예배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신명기 18:15



이 달의 찬양 <주 달려 죽은 십자가> 35P



말씀읽기 - 신명기 18:15

- 15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네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생각하기

Q1. 나는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나요?

Q2.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경험을 함께 나눠보세요.



말씀듣기

사전을 보면 ‘순종’의 뜻은 “순순히 따른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사랑하는 사람과 대화를 나눌 때 어떠한가요? 물론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할 때 내가 더 많이 밀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과 대화할 때, 사랑하는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 귀 기울여 듣고 그 이야기에 공감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는 자연스레 내 이야기를 줄이고 질문합니다. 상대방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공감하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랑하는 사람이 무슨 마음을 갖고 있는지 궁금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지지해주고 싶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 말씀을 지지하며 따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을 수 있을까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을 읽는 겁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헤아리는 것이죠. 그리고 본문을 통해 깨달은 하나님의 뜻을 실천할 수 있는 마음과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반대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보다 더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 가정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나요? “패밀리데이”를 펴고 함께 가정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뜻을 찾는 우리 가정은, 분명 어제보다 오늘 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걸음을 걷고 있을 겁니다. 우리 가정이 앞으로도 지금처럼 함께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바라보며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는 믿음의 가정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가정을 향한 주님의 뜻이 궁금합니다. 지금처럼 하나님을 함께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시어, 말씀 따라 행진하는 우리 가정되게 해주세요.

가족 기도제목을 적어보세요

1

2

3

1

3/12-18
2주 가정예배

부끄러운 노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여호수아 5:9



이 달의 찬양 <주 달려 죽은 십자가> 35P



말씀 읽기 - 여호수아 5:9

09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 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생각하기

Q1. 나는 무엇에 얹매여 있나요? 아니면 자유롭게 살아가고 있나요?

Q2.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유인으로 구원해주셨어요. 나를 자유인으로 만 들어주신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억할 수 있을까요? 함께 나눠보세요.



말씀듣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렵게 이집트를 탈출하고 살아가기 힘든 광야를 지나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가나안 땅에 도착합니다. 하나님은 가나안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하게 하시고 유월절수 5:2, 10을 지키게 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힘들고 어렵게 가나안 땅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 고통스러운 할례를 시키시고 유월절을 지키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이 두 가지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들만 하던 할례와 유월절을 지키게 하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으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랜 세월 동안 노예로 살다 보니, 스스로를 부끄럽게 여기는 상처가 너무나도 커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처를 딛고 일어서 떳떳한 자유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셨던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이이라는 표를 몸에 새기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념하는 절기를 지키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알려주고 싶어 하십니다. 죄와 사망의 노예였던 우리가 생명과 자유를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오늘 하루도 노예의 모습에서 자유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켜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자신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

부끄러운 죄와 사망의 노예에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도록 자유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부끄럽게 여기는 삶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담대하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주세요.



가족 기도제목을 적어보세요

1

2

3

2

3/19-25
3주 가정예배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수아 24:15



이 달의 찬양 <주 달려 죽은 십자가> 35P



말씀 읽기 - 여호수아 24:15

15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생각하기

Q1.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는 무엇인가요?

Q2. 내가 내려놓아야 할 우상은 무엇인가요?



말씀듣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 살아갈 터전을 약속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대로 그들은 땅을 얻었습니다. 땅과 집을 선물 받은 것입니다. 이들은 선물 받은 새로운 장소에서 앞으로 펼쳐질 행복한 미래를 그렸습니다. 그런데 이때 여호수아가 사람들에게 한 가지 중요한 당부를 전합니다. 지금껏 여러분을 이끄신 하나님만을 섬기며 따라야 한다고 말이지요.

여호수아는 하나님만을 섬겨야 한다고 왜 그토록 신신당부했을까요? 그들이 새롭게 살아갈 가나안 땅에는 수많은 우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다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될까 걱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웃을 서로 섬기며 돌보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다가 서로를 경쟁자로 의식하고 해할까 봐 염려되셨던 것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타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이제까지 광야에서 너희를 먹이고 입히며 인도한 나 여호와만을 바라보라.”

우리 가정은 어떠한가요? 세상의 우상을 섬기다가 욕심에 사로잡혀 이웃들을 경쟁자로 여기며 이기고자 노력하고 있지는 않나요? 우리 가정이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이제 까지 인도해주신 그 은혜가 앞으로도 우리 가정에 차고 넘칠 것을 믿는 믿음이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 가정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이웃에게 흘려보내며, 여호와만을 섬기는 가정이 얼마나 복된 가정인지를 세상 가운데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가정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

하나님, 우리 가정을 오늘까지 이끌어주셔서 감사해요.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섬기며 따르는 가정 되게 해주세요. 그리하여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복된 가정 되게 해주세요.



가족 기도제목을 적어보세요

3/26-4/1
4주 가정예배

여호와께 물으니라

사사기 20:26-27



이 달의 찬양 <주 달려 죽은 십자가> 35P



말씀 읽기 - 사사기 20:26-27

- 26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벤엘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 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 27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물으니라 그 때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 있고



생각하기

Q1.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 하나님께 무엇을 물어봤나요?

Q2. 어떤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물어보시고 하나요? 나의 생각과 결정에 따라 진행하다가 실패를 경험한 뒤에 하나님께 물어보시나요? 함께 나누어 보세요.



말씀듣기

사사기를 보면 한 사람이 무참하게 죽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베냐민 지파에 속한 기브아의 불량배들이 레위인의 첨을 강제로 범하고 죽도록 방치하는 일이 벌어졌던 겁니다. 이 끔찍한 일이 발생하자 온 이스라엘의 총회가 소집됩니다. 그런데 이 일의 책임이 있는 베냐민 지파는 총회에 참석하고 용서를 구하며 사죄해야 했지만, 총회에 참석도 하지 않으며 무책임한 태도를 보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백성들 간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스라엘이 연합군을 일으켜 죄를 지은 베냐민 지파와 전쟁을 치른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연합군이 두 번씩이나 패배하고 맙니다. 이스라엘 연합군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죄를 지은 베냐민 지파를 징벌하기 위해 군사를 일으켰고 하나님께 물으며 나아갔는데 계속해서 패했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연합군에게 승리를 주시지 않으셨을까요? 베냐민 한 지파보다 이스라엘 연합군의 힘이 더 강하다고 생각하며 자신들의 힘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같은 민족이 저지를 죄에 대한 안타까움 없이 징벌하는 데만 급급했던 이스라엘 연합군의 태도를 돌아보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봤다면 같은 민족끼리 전쟁을 해야 하는데 누가 먼저 공격해야하냐고 묻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정결케 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했을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은 이스라엘 연합군이 자신의 힘을 의지하던 것을 내려놓고, 분노했던 마음을 가라앉히며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연합군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우리는 스스로 정의가 되어 나아가고자 할 때, 폭력적으로 변하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잠잠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 때에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복된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기도

하나님, 저희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내 생각에 따라 살 때가 많습니다. 모든 생각과 결정과 판단이 하나님보다 내 자신이 앞서고 교만하였습니다. 이제는 모든 일에 앞서 하나님께 묻고 결정하는 우리 가정이 되게 해주세요..



가족 기도제목을 적어보세요

1

2

3

4

메모 MEMO

발행통권	35호
발 행 일	2023년 1월 1일
발 행 인	김운성
기획인	최재선, 박홍준
편집인	양동욱
디자인	한수진
집필진	영락교회 교육부 교역자
주 소	서울시 중구 수표로 33
전 화	02-2280-0131
발 행처	영락교회 교회교육원

본 책의 내용은 무료 배부 됩니다. (www.youngnak.net)

책의 내용을 사용시 '영락교회 교회교육원 저작'임을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